

집단 탈북, 안락사, 낙태, 연말 대선...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불교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연기영)는 8월 22~24일 설악산 백담사에서 '이웃과 나눔의 세상'이라는 주제로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

수련회 위주의 대회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불교적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이번 대회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역사, 과학, 교육, 예술 등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불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민족화합, 정치·경제·사회, 과학기술, 환경, 문화, 예술 등 6개 분과에 걸친 30여 편의 논문 발표와 토론은 전공을 넘나들며 '교수불자'라는 이름에 걸맞았다.

연말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는 등 없었다. 학술발표회 전 기초발표에서 정천구 교수(영산대)와 백경남 교수(동국대)는 불교적 정치지도자상을 화두로 던졌다. 정 교수는 "지도자와 당이 내세우는 정치적 프로그래미 자비, 평등과 불교적 이상 국가를 지향하는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윤은 정상적으로 창출되고, 축적의 개념이 아니라 건전하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흐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회재 교수(광주대)는 최근 세계적 논란이 되고 있는 안락사 문제에 대해 불교 교리에 입각한 입장을 정리해 논의를 모았다. 이 교수는 '불교와 생명윤리' 주제 발표에서 '안락사의 전제조건이 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나 고통에 연유한다고 할지라도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그 고통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며 '불살생의 입장에서 보면, 그에게 주어진 고통은 그 자신이 짊어져야 할 업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생략되면 또 다른 고통이 다음 생애에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안락사가 자비로운 동기에 의거한다고 해도 살생의 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의사의 윤리지침이나 입법화로 나아가는 것은 인간 생명 경시의 제도화로 전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윤범모 교수(경원대)는 '한국 불교미술의 진로문제'에서 불교미술의 실종과 불사 만능주의를 꼬집었다. 윤 교수는 "전국 각지에 신라

대선·안락사·탈북자 불교적 해법 제시

환경 등 10분야 정책연구위 구성

한국교수불자련, 백담사에서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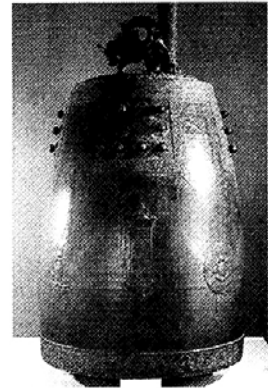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8월 22~24일 설악산 백담사에서 수련회와 학술발표회를 겸한 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과학기술 분과에서 참가 교수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는 모습.

이윤추구를 옹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평등과 불교적 이상 국가를 지향하는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윤은 정상적으로 창출되고, 축적의 개념이 아니라 건전하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흐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회재 교수(광주대)는 최근 세계적 논란이 되고 있는 안락사 문제에 대해 불교 교리에 입각한 입장을 정리해 논의를 모았다. 이 교수는 '불교와 생명윤리' 주제 발표에서 '안락사의 전제조건이 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나 고통에 연유한다고 할지라도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그 고통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며 '불살생의 입장에서 보면, 그에게 주어진 고통은 그 자신이 짊어져야 할 업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생략되면 또 다른 고통이 다음 생애에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술의 복제품이 범람하고 물량주의, 형식 우선주의가 넘치다 보니 불사는 있고 불교미술은 없다는 냉소적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미술계의 전문성 활용을 통해 우리 시대의 미적감각과 전통에 맞는 기술을 결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고려시대 범종 가운데 가장 큰 천홍사 동종(국보 280호)이 300여 년 동안 남한산성 동종으로 사용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 전보삼) 남사모은 '1927년 10월 간행된 잡지 <별관론> 9호에 실린 글을 통해 남한산성 동종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국보 280호 성거산 천홍사 동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8월 27일 밝혔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중인 천홍사 동종(국보 280호).

"천홍사 동종 남한산성서 사용"

1010년 주조...1626년 산성 완공후 옮겨와

사. 연복사, 천홍사 종을 조선의 4대 명종으로 꼽았으며, 천홍사 종에 대한 설명에서 '천홍사종 남 천안이 폐쇄한 후에 남한산성 종각에 있다가 창경원 박물관 설치 초에 가져온 것이니, 고려 원종 원년(1010)에 주조(鑄成)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 '남한산성은 행궁 가운데 유일하게 종묘가 설치됐을 만큼 중요한 성이었다'며 "이런 곳에 천홍사 동종을 옮겨왔다는 것은 조선시대에도 천홍사 종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공식명칭이 '통화시립박물관(統和二十八年鑄) 천홍사 동종'인 이 종은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종 가운데 신라시대의 상원사 동종과 봉덕사 성덕대왕신종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인문학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학술 지원 사업에 불교 주제의 과제들이 잇달아 채택되고 있다. 지난 8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1차 기초학문육성 지원 사업에 5개 과제가 선정됐지만 382호 2번 참조된 데 이어 8월 29일 학술진흥재단이 발표한 학문 후속세대 지원사업에서도 9개 과제가 뽑혔다. 학문 후속세대 지원사업은 박사급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 기반 지원 사업으로,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한 불교학계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중국 초기 선종능가선법 등 9개 과제 정부 학술지원사업 선정

학술진흥재단, 16~25일 2차 공모

선 성리학과의 불교인식(오지섭) △인도불교에서 중관학과 공사상의 철학적 의미에 대한 연구(남수영)와 신진연구인력장려금지원 분야의 △임제선의 성립과 한국 선불교의 정통성 형성에 관한 연구(박재원) △고려 원간섭기와 말기의

사원 연구(윤기업)는 1년 지원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은 기초학문육성 지원 사업 2차 접수를 받는다. 모두 160억의 예산이 지원되는 2차 공모는 1년 지원이 원칙이며, 온라인 접수는 16~25일, 서류 제출은 30일까지 하면 된다.

1차 기초학문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보조전서 구역에 참여중인 이덕진(고려대 강사) 박사는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하기 힘들었던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일정 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질적으로 더 우수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 과제 개발만 된다면 불교학 연구 기반 조성에 긍정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禪상담연구원 개원

불교 수행법·심리학 접목

전통적인 불교 수행법과 현대 심리학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불교적 상담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선(禪)상담연구원(원장 인경스님)이 문을 열었다.

보조사상연구원 연구실장 인경스님은 1일 동국대 강사 임승택 박사, 이자랑 박사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영빌딩 301호에 '선상담연구원'을 개원했다.

선상담연구원은 간혹선과 초기 불교 수행법 등 불교 수행법을 상담심리학의 심리치료에 도입, 현대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심리적·정서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올바른 수행생활을 돕기 위한 대안적 방법론을 찾아 나갈 계획이다. 선상담연구원은 이와 함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3년 과정의 교양대학을 마련해 초기불교의 유식불교, 선과 정신분석 등의 강의를 펼친다. 이론과 실습이 함께 이뤄지며, 교육과정과 연수교육을 마치면 2급 불교상담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02-733-5311

학회소식

보조와 조선초기 선사상 28일 동국대서 발표회

보조사상연구원은 28일 오후 1시 30분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보조와 조선초기 선사상'을 주제로 48차 학술발표회를 연다. 김방룡 영산원불교대 교수와 황인규 동국대 강사씨가 발표할 예정이다. 02-733-5315

불교학연구회 학술발표

14일 오후 고려대서 불교학연구회는 14일 오후 2-6시 고려대 국제관 313호에서 13차 학술발표회를 갖는다. 임승택(동국

대 강사)씨가 '선정의 문제에 관한 일고찰'을, 안성두(충남대 강사)씨가 '유가사지론의 연기설'을 발표한다. 김재성(고려대장경연구소), 조준호(동국대), 한자경(이화여대), 김진태(서울불교대학원대)씨가 각각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02-2260-3128

정보화사회 불교의 대응 불교사회문화원서 포럼

현대불교사회문화원은 26일 오후 7시 문화원 교육실에서 '정보화 사회에 대한 불교의 대응'을 주제로 5차 포럼을 개최한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정보 공유 운동과 불교적 경제관'을 발표하고 민경배 사이버연구소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02-736-6940

위덕대, 불교학 석사 첫 배출

일반대학원 1명, 불교대학원 4명 학위

진각종립 위덕대가 불교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를 처음으로 배출했다. 지난 8월 23일 학위 수여식에서 일반대학원 불교학과 1명, 불교대학원 4명 등 모두 5명이 불교학 관련 석사학위를 받은 것이다.

관수행의 일고찰'이 초기불교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응용불교 분야에서 이정희 씨(마음의 구조에 대한 유식학적 해명), 장준희 씨(불전문학의 아동교육적 가치에 대한 연구), 조순희 씨(유식학에서의 고타)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각각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위덕대는 96년 불교학과가 생긴 이래 2000년 2월 첫 졸업생을 배출

했으며, 2000년 3월 일반대학원 불교학과와 불교대학원 과정을 개설했다. 불교대학원은 불교학과 밀교, 응용불교, 초기불교 전공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각종 교직자 양성을 위한 중학과(석사과정)를 2003년 개설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for 'Buddha Bell' (梵鐘) medicine. Text includes: '범종이 스스로 운다(自鳴梵鐘)!! 아직도 잠자는 범종은 없습니까? 아직도 울리지 못하는 범종은 없습니까? 범종은 있으나 칠 사람이 없는 범종은 없습니까? 걱정은 이제 그만 던지십시오. 울어라! 한번만 命 하시면 봄·여름·가을·겨울, 원 하시는 시간에! 원 하시는 횟수대로! 영원히 크고 크게 울려 매아리 칠 것입니다. 離苦得樂을 이루고! 破邪顯正으로 맑고 밝은 氣運이! 부처님 眞理를 宣揚할 것입니다. *年內로 하시는 寺刹은 염가로 해 드립니다. 시스템 시설은 선착순입니다. 합장하고 소식을 기다리며 佛日增輝 法輪常轉을 千拜萬拜!!! 부영공업사 특수기계제작부 대표 신현직 부처님 품에서 發願祈禱!!! Tel: 033-562-1535 H.P: 011-369-2732

Advertisement for '당뇨·고혈압' (Diabetes/Blood Pressure) medicine. Text includes: '당뇨병 혈당강하 조절제 국내약초 100% 아생약초 90% 生人정' and '▶ 혈액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성이 정상이 되어, 비만도 해소됩니다. ▶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90%는 아생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 생인정은 일부는 달이고 일부는 써서 비배하여 생산하였으며 일체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생인정은 식품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 복용시 나타나는 현상: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횟수가 늘어납니다. 신장기능 약화에 의한 붓매감이 해소됩니다.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권혈의 통증과 불편이 없어집니다. 일반적 무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원기 회복이 됩니다. 가연피부가 교차됩니다.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대변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난 후에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귀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복용초기에 눈물이 나오는 느낌이 오거나,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나지만 점차 없어집니다. 간혹 계절에 따라 아픈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점차 없어집니다. 위의 설명은 제질이 개선되는 현상임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정리가 확연히 나타납니다. 신약을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경과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혹 계절에 따라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용분과 박소장님 5천원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일 3회, 1회 3-4정씩 섭취(나이와 소화능력에 따라 조절) 생인당 주문 및 상담 (054)281-0544

Advertisement for '수맥' (Meridian) research. Text includes: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and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지전류·지자기의 유헤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어깨결림, 우울증, 약용,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맥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헤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들과 번지문 앞면 자택·사무실·조상묘소 의수맥·지자기·지전류유류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헤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드리며 휴대폰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Advertisement for '음양체형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Yin-Yang Body Type Management Volunteer Recruitment). Text includes: '서울 서초구 소재 보현정사주지 보현스님에서는 현대의 선·후천성 기형, 비만, 체형의 변화에서는 병상중들이 음양체형관리에 의하여 건강을 되찾고 체력, 활력이 개선되는 것을 체험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은 물론 양로원, 장애인, 고아원 등의 소외된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스님의 수행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음양체형관리에 공감이 있으신 분들은 (주)음양피부체형연구회 홈페이지 www.skin-reform.co.kr(주)음양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육안내: ▶ 모집기간: 수시모집 ▶ 교육기간: 매주 수요일 오전반 AM 10 ~ PM 12시 30분 오후반 AM 7 ~ PM 9시 30분 ▶ 교육비: 보현정사 추천에 의하여 무료교육 ▶ 교육장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9-4 진솔빌딩 B1 (주)음양피부체형연구회 ▶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 직장재직증명서 1통(전업주부아닌 경우) ▶ 상담 및 문의처: 보현정사 포교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6-7호 이화빌딩 5F 전화번호: 02)583-1080, 02)521-1415 H·P: 016)321-1080 *현 피부미용이나 비만 체형관리실 운영하시는 분은 제외